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일부 대학생 흡연자의 금연 시도
관련 요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건강증진학과 건강증진교육전공
홍 금 숙

일부 대학생 흡연자의 금연 시도
관련 요인

지도 지 선 하 교수

이 논문을 보건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8월 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건강증진학과 건강증진교육전공

홍 금 숙

홍금숙의 보건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지 선 하 

심사위원 김 희 진 

심사위원 정 증 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8년 6월 일

감사의 말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에 힘을 얻어 시작한 대학원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논문이 나오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연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큰 방향을 제시해 주시며 논문의 완성에까지 격려해 주신 지선하 교수님, 논문 전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개인적으로 용기를 주신 김희진 교수님, 자료수집에서부터 연구의 결과까지 세심하게 지도해 주시고 용기 북돋워 주신 정금지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학원 시작을 응원해 주신 장은경 파트장님, 마음속으로 깊이 응원해 주신 김양수 팀장님, 부서 적응과 대학원 공부의 시간을 배려해 주시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유은주 파트장님, 음지영 파트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걱정하고 격려해 준 소아심장중환자실 식구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공부하며 직장 생활을 하는데 힘을 주시고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던 지금은 될 수 없는 시어머님, 항상 걱정하시며 지켜봐 주신 부모님, 논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큰언니네, 오빠네, 친정 식구들 그리고 남편과 부족한 엄마를 이해하고 위로해 주는 사랑하는 화영, 승우, 승훈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마움과 사랑을 전합니다.

마지막까지 힘이 되었던 동기 권효정, 주경희, 김종은 선생님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2018년 7월

홍금숙 올림

차 례

요약	v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II. 문헌고찰	
1. 금연 시도율의 정의	6
2. 세계의 금연 시도율	6
3. 우리나라의 금연 시도율	6
4. 금연 시도 관련 요인	8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틀)	10
2. 연구대상	11
3. 변수의 선정 및 정의	11
4. 분석 방법	15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7
2. 금연 시도에 따른 흡연 및 간접흡연 양상	23

3. 금연 시도 양상	33
4. 금연 시도 관련 요인	36
V. 고찰	42
VI. 결론	47
참고문헌	49
부록	53
Abstract	68

표 차례

<표 1>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차이	19
<표 2> 연구대상자의 금연 시도 여부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차이	22
<표 3> 금연 시도에 여부에 따른 흡연 및 간접흡연 양상	28
<표 4> 금연 시도에 여부에 따른 흡연 특성의 연속형 변수	32
<표 5> 금연 시도 양상	35
<표 6> 금연 시도 관련 요인	39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의 틀	10
--------------------	----

국 문 요 약

일부 대학생 흡연자의 금연 시도 관련 요인

배경 및 목적 : 발달과정에 있어서 성숙완료 단계에 있는 대학생은 성인 초기에 해당되며 흡연 및 음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다른 발달시기에 비하여 사망률이나 질병 이환율이 비교적 낮고, 잘못된 생활습관을 수정하여 보다 나은 건강상태를 가지기에 적합한 집단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흡연자의 금연 시도 관련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 대도시에 소재한 4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흡연자를 대상으로 편의 추출 모집 조사 하였다. 미비응답이 없는 전체 응답자 233명 중 지금까지 담배 5갑(100개비) 이상을 피웠고(N=221), 현재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자는 201명으로 선정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과 기술 통계를 시행하였고, 혼란변수를 통제한 후 금연 시도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고, 오즈비(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과 P-값을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연구결과 : 총 201명으로 남자는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이 62.8%(115명), 없는 군이 37.2%(68명)로 나타났다. 여자는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이 66.7%(12명), 없는 군이 33.3%(6명)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심리적 특성인 행복감과 스트레스가 여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금연 시도 여부에 따른 흡연 및 간접흡연 양상을 살펴보면, 하루 평균 흡연

량, 니코틴 의존도가 금연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신종담배 사용 특성에서 시가 사용 경험이 없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금연시도를 많이 하였다. 간접 흡연에서 가정 내 간접흡연 경험, 담배규제 정책에 대한 태도에서 가향담배판매금지 찬성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금연 시도 양상을 살펴보면, 금연 시도 안하는 이유는 현재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가 6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금연 시도 방법에서는 스스로(혼자서)가 88.3%를 차지했다.

금연 시도 관련 요인에서는 하루 평균 흡연량, 금연계획, 전자담배 경험, 가정 내 간접 흡연 경험,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태도로 가향담배판매금지 찬성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결론 : 이 연구는 대학생 대상자로 직접 질문지로 편의 추출 모집 조사로 시행한 자료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일일 흡연량이 적을수록 금연 시도 뿐만 아니라 금연 성공률이 높다는 바와 같이 흡연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담배 경험이 금연 시도 관련 요인으로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나타났다.

전자담배를 금연 수단 및 담배 대체 용품으로 인식하는 대중의 시각과 달리, 전자담배의 효용성에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여러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다.

금연 시도 관련 요인으로 제시된 요인뿐만 아니라 금연의 성공 관련 요인 규명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대학생 시기의 흡연이 유발하는 건강 유해성과 사회경제적 손실로 인해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 서비스 홍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효과적인 금연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 대학생, 흡연, 금연 시도, 신종담배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대학생은 발달 특성상 성인 초기에 해당되며 흡연 및 음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학생은 발달과정에 있어서 성숙완료 단계에 있는 국가의 지적 재산이며 이들의 건강문제는 개인적인 필요성만이 아닌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대학생은 청년기에 속하는 집단으로 다른 발달시기에 비하여 사망률이나 질병 이환율이 비교적 낮고 잘못된 생활습관을 수정하여 보다 나은 건강상태를 가지기에 적합한 집단이다(김신정 등, 2002).

최근 우리나라 국민의 질병 및 사망양상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생활양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제시되고 있다. 다양한 생활양식은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건강상 위해를 가하는 것이 흡연이다. 흡연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건강 문제로 등장하였다. 흡연의 피해는 개인을 조기 사망하게 한다는 점과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의료비용을 상승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2002).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을 피웠고 현재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분율을 현재흡연율이라 한다. 최근 자료에서 현재흡연율을 살펴보면, 2015년 22.6%(남자 39.3%, 여자 5.5%)로 2014년 24.2%(남자 43.1%, 여자 5.7%)에 비해 감소 추세였으나 2016년 23.9%(남자 40.7%, 여자 6.4%)로 소폭 상승하였다. 2016년 연령대별 성별 현재흡연율 현황을 보면

20대 이하의 흡연율은 25.3%(남자 25.3%, 여자 6.3%)로 전체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흡연을 시작하는 연령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건의료인의 관심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Park & Draki, 2015). 만 19세 이상의 평생흡연자의 흡연시작 연령은 남자의 경우 지난 15년간 20.6세에서 19.5세로 약 1년 정도 낮아졌고, 여자의 경우는 31.6세에서 23.8세로 약 8년 정도 낮아졌다(국립암센터, 2016). 이 시기는 대학생에 해당되는 연령이다.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자유로이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성인기로 전환되는 시기로서, 청소년의 흡연과 대학생의 흡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흡연의 제약이 적어진다. 또한 이 시기는 청소년기의 건강행동에 영향을 받고 성인기의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이지만(김영복, 2015), 건강습관이 확고히 형성되지 않아 건강증진 행위가 부적절하게 수행될 가능성이 크다(이미라, 1997). 대학생 시기의 올바른 건강행위 이행과 실천은 청년기와 노년기의 건강상태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이 시기의 금연중재는 상당히 중요하다(Escoffery, McCormick, & Bateman, 2004).

대부분의 성인과 청소년 흡연자들은 금연을 원하며 많은 성인 흡연자들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금연을 시도하였고(김인규, 2014),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현재흡연자의 금연시도율(최근 1년 중 24시간 이상 금연 시도)은 담뱃값 인상의 영향으로 2014년 25.5%에서 2015년 34.6%로 급등했지만, 지난해는 29.7%로 다시 떨어졌다.

현재 흡연자의 57.5%는 앞으로 담배를 끊을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금연시도율 또한 57.0%로 나타나, 높다고 볼 수 있지만(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4), 이들 중 성공하는 확률은 개인적으로 시행하는 금연 성공률은 우리나라의 경우 2~3%, 미국의 경우 10% 정도의 성공률을 보고하였다(천은미, 2015; Lee & Kahende, 2007). 금연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연성공

를 및 금연지속률은 낮다(소현진, 2012).

여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성인초기에 해당되는 대학생의 객관적 지표를 포함하는 흡연 및 금연특성과 금연중재프로그램 내용 및 전달방법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김은경 등(2013)의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은 금연의지를 향상시켜 주는 것과 구체적 금연방법을 알고 싶어 하고, 이에 대한 정보 전달 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경험이 있는 금연준비단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금연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인 니코틴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확인한 이혜순 등(2013)의 연구는 금연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니코틴의존도가 높게 나타나 금연자기효능감이 니코틴의존도의 중요 변수라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흡연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 환경과 금연시도경험의 관련성을 연구한 이국화(2015)의 논문에서는 금연시도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1일 흡연량이 2~9개비인 경우 금연시도경험이 증가하였고,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동일한 결과를 볼 수 있으며, 담배 구매 방법, 금연홍보 인지, 간접흡연 노출, 전자담배 경험 등이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한국 흡연청소년의 금연시도 관련요인 연구(박지연, 2016)에서는 흡연 청소년은 일일 흡연량이 적고, 가정 내에서 간접흡연을 경험하지 않으며, 학교금연교육 경험과 금연홍보매체 노출이 있고, 친한 친구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 금연시도가 높았다. 청소년 흡연자의 금연시도 이유와 전자담배 사용과의 관련성 연구(이예림, 2015)에서는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금연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고, 학교와 집에서 사용, 호기심, 금연하기 위해 전자담배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습관적 흡연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여겨지는 대학생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시도 관련요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흡연자의 금연시도 관련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대학생 흡연자의 금연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금연시도를 높이

는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 금연 중재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흡연은 중단될 경우 금단증상을 수반하는 만큼, 흡연자들이 금연을 성공하기까지 몇 차례의 금연 시도가 필수적으로 선행된다는 것이 여러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금연을 얼마나 시도하고 있는지, 금연 시도 경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흡연양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일부 대학생 흡연자의 금연시도 경험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금연정책수립 및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로서, 대상자의 금연시도와 일반적 특성, 심리적 특성, 음주 특성, 흡연 관련 특성, 신종담배 사용 특성, 간접흡연 노출, 담배규제 정책 태도를 확인한다.

두 번째 단계로서, 대상자의 금연시도에 따른 독립변수의 차이를 빈도분석으로 파악한다.

세 번째 단계로서, 대상자의 금연시도와 관련된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파악한다.

II. 문헌고찰

1. 금연시도율의 정의

금연시도율은 흡연자 중에서 일정 기간 내에 금연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금연 시도자의 비율로 산출된다. 조사방법론에 따라 현재 흡연자 또는 과거 흡연자(현재 비흡연자)를 함께 포함하여 금연 시도 경험을 물으며, 일반적으로 최근 1년(12개월) 내에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자들을 기준으로 지표를 산출한다. 덧붙여, 하루(24시간) 이상 금연한 것으로 한정하여 조사하는 등 엄밀한 기준으로 금연을 정의하기도 한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6).

2. 세계의 금연시도율

유럽연합(EU) 유로바로미터 보고서에 따르면(15세 이상 현재 흡연자중 최근 1년 내에 금연을 시도한 비율), EU의 2013년 기준 금연시도율은 최소 9%(이탈리아, 포르투갈)에서 최대 38%(덴마크)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EU 28 개국의 평균 금연시도율은 19%임을 알 수 있다. 이는 2012년과 비교하여 2%p 감소한 것인 반면, 스웨덴(13%p)과 네덜란드(12%p 상승)는 금연시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6).

3. 우리나라의 금연시도율

우리나라는 성인을 대상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에서 금연시도율을 정기적으로 매 3년마다 산출하고 있다.

성인 현재 흡연자의 경우 2013년 금연시도율은 57.0%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여성(60.7%)이 남성(56.5% 약 2명중 1명)보다 4.2%p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성의 흡연율이 여성보다 더 높은 것을 감안할 때 남성 흡연자의 금연시도를 더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2015년 기준으로 현재 흡연 중인 중·고교생 중 71.7%가 금연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71.5%, 여학생이 72.1%로 성인에 비해 성별의 차이가 비교적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016년에는 전체 70.1% (남학생 70.0%, 여학생 70.4%)로 소폭 감소하였다.

반면에 금연 시도율과 금연의도는 과거에 비해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이다. 1992년도 금연시도율은 남자 흡연자중 51.4%였으며 앞으로 금연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8.7%로 1989년의 56.0%, 57.8%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29세 남자 흡연자중 30.4%만이 앞으로 금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금연 의도가 매우 낮으며 1989년의 50.3%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금연계획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은 60%를 나타내어(김종성 등, 1989) 중년이나 노년에 비해 금연의지가 낮음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두 지표 모두 2010~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국가 담배규제 특히 금연지원 및 금연 교육 측면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최근 2016년 현재흡연자의 금연시도율은 58.0%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60.1%, 남성이 57.6%였다(질병관리본부, 2018).

4. 금연시도 관련 요인

2013년 성인 흡연 실태 조사에서 흡연자들이 금연시도를 하는 주된 이유는 ‘건강이 나빠져서, 건강에 대한 염려’가 58.9%로 가장 많았고,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13.8%,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8.5%, 주변 사람들의 권유 4.3%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자신 혹은 가족의 건강이 금연시도의 주된 이유였다.

Fagan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하루 20개비 이상 흡연하는 경우보다 하루 5개비 혹은 그 이하로 흡연하는 경우 금연시도 경험이 많았고, 아침 기상 후 30분 이내 흡연하는 경우 금연시도 경험이 적었다. 1회 혹은 그 이상 금연시도 경험을 가진 흡연자들에게서 금연의도가 있었고, 매일 흡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별, 인종, 담배 종류가, 매일 흡연하는 경우에는 기상 후 첫 번째 흡연시간이 금연시도와 관련이 있었다.

성인 남성의 금연 준비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정운 등, 2012)에서는 1개월 이내 금연의도가 있는 대상자의 75.4%가 최근 1년 동안 금연을 하였다.

Ana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13세 이후에 흡연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13세 이전에 흡연을 하는 경우보다 금연시도가 많았다. 우울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는 우울 경험이 있는 스포츠 팀에 참여하는 경우, 치과 진료를 받는 경우 금연시도가 높았고, 약물 사용, 성적 위험 행동, 성 상대자가 많은 경우 금연시도가 낮았다. 매일 흡연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일 신체활동을 하는 것이 금연시도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Tucker et al.(2005)의 연구에서 23 ~ 39세 성인들은 사회적 변화와 개인 내적 및 인구학적 요인 그리고 건강상태 인지가 금연시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

였다. 흡연 청소년의 76%가 금연을 시도하였고, 26%가 최소 6개월 정도 금연을 유지하였다. 금연을 지속하는 행위는 어렵지만, 금연시도를 하는 그 자체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되므로 이전에 금연을 시도한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금연에 더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Zhu et al., 1999; 이여진 등, 2011; 손성재, 2014).

청소년의 흡연 환경과 금연시도경험의 관련성(이국화, 2015)에서는 1일 흡연량이 2 ~ 9개비인 경우 금연시도경험이 증가하였고, 현재 흡연자들의 담배 구매 방법을 조사한 결과 편의점이나 친구, 선배에게 구매하는 경우 금연시도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금연홍보의 인지가 있는 경우 금연시도 경험이 높았고, 가정에서 간접흡연이 주 1 ~ 4일 노출된 경우 금연시도가 높았다. 전자담배를 경험한 학생이 남, 여학생 모두 금연시도 경험이 높았다. 신체활동과 금연시도와의 관련성에서는 체중 조절 노력이 없는 경우보다 체중 조절 노력을 하는 경우가 금연시도 경험이 높았다. 슬픔·절망감 경험이 있는 경우, 주 1회 이상 과일섭취가 있는 경우 금연시도 경험이 높았는데, 학년이 중학교 보다 고등학교인 경우, 일주일 평균 용돈이 0~3만 원에 비해 12만 원 이상인 경우 금연시도 경험이 낮았다.

담뱃값 인상은 청소년에게 민감하게 작용하여 금연을 시도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다(Ding, 2003; Kim et al., 2012; 조경숙, 윤장호, 2014; 황준현, 박준우, 2014). 청소년기는 담배구매가 제한되지만 대학생은 자유로이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시기이고, 간헐적 흡연자가 규칙적인 흡연자가 되는 연령이 21.6세로 보고 되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0). 올바른 건강행위의 이행과 실천이 중요한 대학생 시기의 금연시도 관련 요인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금연정책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틀)

본 연구에서는 일부 대학생 흡연자의 금연 시도 관련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질문지 양식을 기초로 추가된 설문이 있는 질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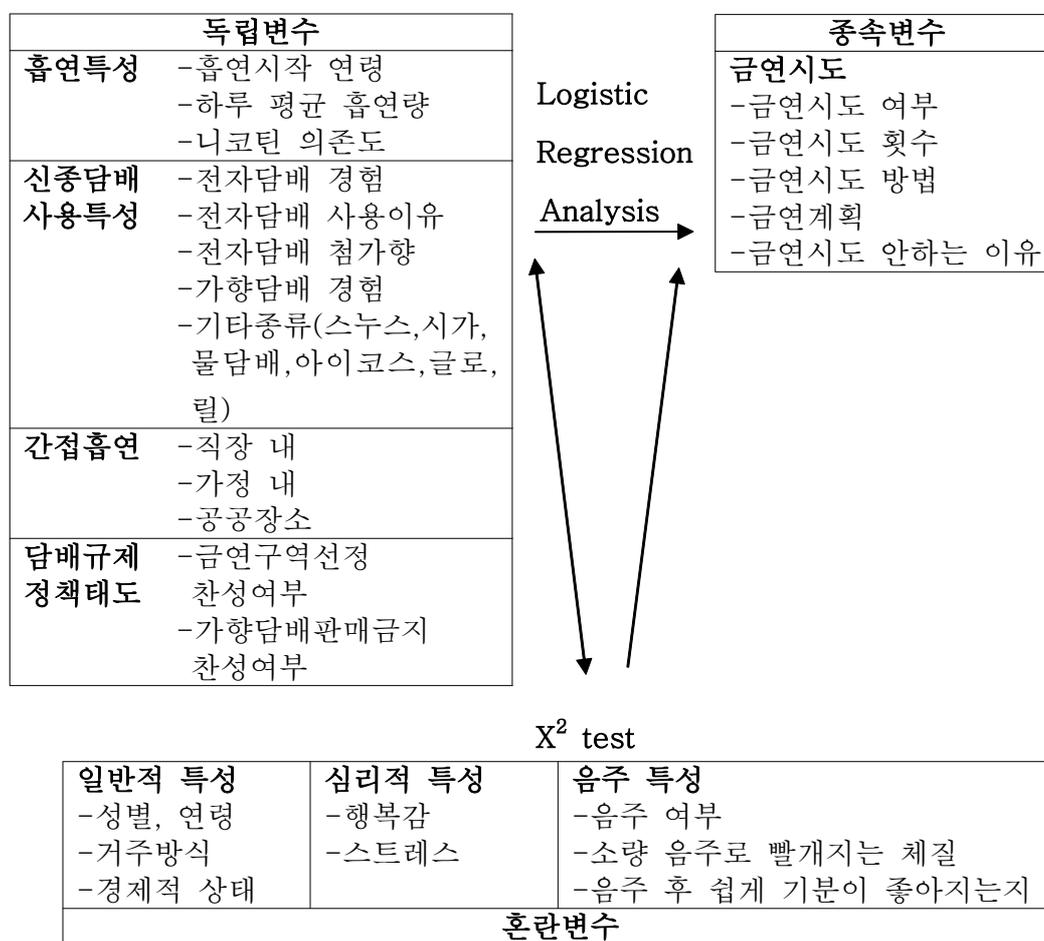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틀

2. 연구대상

대도시에 소재한 4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흡연자를 대상으로 편의 추출 모집 조사 하였다. 미비응답이 없는 전체 응답자 233명 중 지금까지 담배 5갑(100개비) 이상을 피웠고(N=221), 현재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였다.

현재 흡연자는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한 대(한 개비)라도 피운 날이 있는 경우로 하였고, 과거에는 피웠으나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한 대(한 개비)라도 피운 날이 없는 경우는 과거 흡연자로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명으로 선정되었다.

3. 변수의 선정 및 정의

가.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금연시도는 ‘최근 1년 동안 담배를 끊고자 하루 (24시간) 이상 금연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자가 기재한 응답으로 ‘예’ 라고 대답한 경우를 금연시도가 있는 것으로, ‘아니오’ 라고 대답한 경우를 금연시도가 없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금연시도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금연시도 횟수와 가장 최근에 사용하였던 금연시도 방법을, 금연시도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금연을 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를 조사하였으며, 금연시도 계획은 앞으로 담배를 끊을 계획이 있는지로 조사하였다.

나.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흡연시작 연령, 하루 평균 흡연량, 니코틴의존도의 흡연특성과 전자담배 경험, 전자담배사용 이유, 전자담배 첨가향, 가향담배, 기타 신종담배 종류(머금은 담배(스누스), 시가, 물담배, 아이코스, 글로, 릴)의 사용특성과 직장(아르바이트포함) 내, 가정, 공공장소의 간접흡연과 금연구역 선정 찬성여부, 가향담배판매금지 찬성여부의 담배규제정책 태도로 분류하였다.

1) 흡연 특성

흡연시작 연령은 ‘처음으로 담배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워본 때는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에 ‘만 ○○세’ 라고 표시하였다.

하루 평균 흡연량은 ‘하루 평균 흡연량은 몇 개비입니까?’ 라는 질문에 ‘○ 개비’ 로 표시하였다.

니코틴의존도는 Kozlowski, Frecker와 Fagerstrom (1991)이 수정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도구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에 대해 0-1점 또는 0-3점으로 배점하여 점수범위는 0-10점이고, 각 문항의 점수를 합한 총점이 높을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0-3점을 ‘3점 이하’, 4-10점을 ‘4점 이상’ 으로 분류하였다.

2) 신종담배사용 특성

전자담배사용 경험은 ‘지금까지 전자담배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 ‘아니오’ 로 분류하였다.

전자담배사용 이유는 ‘전자담배를 사용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담배보다 덜 해로울 것 같아서’, ‘금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실내에서도 피울 수 있어서’,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맛이 더 좋아서’, ‘향이 좋아서’, ‘담배 냄새가 나지 않아서’, ‘호기심으로’, ‘기타’ 로 구성되었다.

전자담배 첨가향은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본 전자담배 첨가향(Flavor)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멘톨 (멘솔, 박하향)’, ‘버터 또는 크림향’, ‘커피향’, ‘시나몬 (계피) 향’, ‘과일향’, ‘초콜렛향’, ‘토티시가’, ‘기타’로 구성되었다.

가향담배 경험은 ‘가장 많이 사용한 담배제품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멘솔 향, 캡슐 담배’, ‘멘솔 향, 캡슐이 없는 담배’, ‘멘솔 이외의 가향 (과일 향 등), 캡슐 담배’, ‘멘솔 이외의 가향 (과일 향 등), 캡슐이 없는 담배’에 응답한 경우는 가향담배 경험이 있는 것으로, ‘향이 없는 담배’, ‘기타 (전자담배, 시가, 롤링 타바코, 씹는 담배 등)’ 에 응답한 경우는 가향담배 경험이 없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가향담배 사용 후 금연시도 횟수 변화는 ‘가향담배 흡연을 시작한 이후 담배를 끊고자 하루 (24시간 이상) 금연을 시도한 횟수의 변화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향이 없는 담배를 피울 때보다 금연시도 횟수가 많다’, ‘향이 없는 담배를 피울 때보다 금연시도의 횟수가 적다’, ‘금연시도 횟수는 같다’로 분류하였다.

기타 신종 담배 경험은 ‘지금까지 사용해 본 것을 표시해 주십시오’ 라는 질문에 ‘머금는 담배(스누스)’, ‘물담배’, ‘시가’, ‘아이코스(IQOS)’, ‘글로(Glo)’, ‘릴(Lil)’ 로 구성되었다.

3) 간접흡연

간접흡연에 대한 질문은 ‘최근 7일 동안 직장 (아르바이트 포함)의 실내에

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로 응답한 경우는 직장 내 간접흡연이 있는 것으로, ‘아니오’, ‘직장에 다니지 않는다(일을 하지 않는다)’ 로 응답한 경우는 간접흡연이 없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최근 7일 동안 가정의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 로 응답한 경우는 가정 내 간접흡연이 있는 것으로, ‘아니오’, ‘본인을 제외한 가족 중 가정의 실내에서 일상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다’ 로 응답한 경우는 간접흡연이 없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최근 7일 동안 공공장소의 실내 (흡연실 제외) 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로 응답한 경우는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이 있는 것으로, ‘아니오’ 에 응답한 경우는 간접흡연이 없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4) 담배규제정책의 태도

담배규제정책의 태도는 ‘향후 우리나라에서 다음 장소 (모든 실외 공공장소, 모든 보행로, 모든 공원, 음식점 실외, 편의점 실외 등)를 금연구역으로 선정한다면 이에 찬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찬성’, ‘반대’ 로 분류하였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가향담배 판매를 금지한다면 이에 찬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찬성’에 응답한 경우는 찬성으로, ‘반대’, ‘모르겠다’ 로 응답한 경우는 반대로 분류하였다.

다. 혼란변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고, 금연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

한 다양하여 다각도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 심리적 특성, 음주 특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일반적 특성에 성별, 연령, 거주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성별은 남, 여로, 연령은 19~24세, 25세 이상으로 분류하였고, 거주방식은 본가, 자취와 하숙, 기숙사 또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심리적 특성은 행복감, 스트레스로 구성하였다. 행복감은 ‘평소에 자신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행복함, 보통, 불행함으로 분류하였다. 스트레스는 ‘평상시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스트레스가 많음, 보통, 스트레스가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음주 특성은 음주 경험, 소량 음주로 빨개지는 체질, 음주 후 쉽게 기분이 좋아지는 지로 구성하였다. 음주 경험은 ‘술을 드시기 시작한 것은 몇 세부터 입니까?’ 라는 질문에 ‘만 ○○세’, ‘마시다 끊었다’ 로 응답한 경우는 음주 경험이 있는 것으로, ‘술을 안 마신다’ 로 응답한 경우는 음주 경험이 없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 자료의 분석을 하기 위해 SPSS 24.0 Version 을 이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심리적 특성, 음주 특성, 흡연 특성, 신종담배 사용 특성, 간접흡연, 담배규제정책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 분석과 기술 통계를 시행하였다.

흡연 특성, 신종담배사용 특성, 간접흡연, 담배규제정책 태도의 독립변수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혼란변수를 통제한 후 금연시도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고, 오즈비(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과 P-값을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미비응답이 없는 전체 응답자 232명 중 지금까지 담배 5갑(100개비) 이상을 피웠고, 현재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 201명을 분석하였다.

총 201명으로 남자가 183명, 여자가 18명이었다.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에 따른 남녀의 금연 시도 양상을 보면 남자는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이 62.8%(115명), 없는 군이 37.2%(68명)로 나타났다. 여자는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이 66.7%(12명), 없는 군이 33.3%(6명)로 나타났다.

거주방식을 살펴보면, 본가에서 사는 경우 남자가 34.4%(63명), 여자가 50.0%(9명), 자취·하숙인 경우 남자가 36.1%(66명), 여자가 44.4%(8명), 기숙사·기타인 경우 남자가 29.5%(54명), 여자가 5.6%(1명)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상태를 살펴보면, 상인 경우 남자가 35.0%(64명), 여자가 16.7%(3명), 중인 경우 남자가 48.6%(89명), 여자가 50.0%(9명), 하인 경우 남자가 16.4%(30명), 여자가 33.3%(6명)로 나타났다.

심리적 특성에서 행복감을 살펴보면, 행복함인 경우 남자가 50.8%(93명), 여자가 22.2%(4명), 보통인 경우 남자가 46.5%(85명), 여자가 55.6%(10명), 불행함인 경우 남자가 2.7%(5명), 여자가 22.2%(4명)이었고, 여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를 살펴보면, 없음인 경우 남자가 26.2%(48명), 여자가 55.6%(10명), 보통인 경우 남자가 61.2%(112명), 여자가 38.8%(7명), 많음인 경우 남자가 12.6%(23명), 여자가 5.6%(1명)이었고, 여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음주 특성에서 음주경험을 살펴보면, 술을 마신다고 한 대상자인 경우는 남자가 96.7%(177명), 여자가 100.0%(18명),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한 대상자인 경우는 남자가 3.3%(6명), 여자가 0.0%(0명)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1).

표 1.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차이

특성	변수	구분	성별		p value
			남자 N=183 N(91.0%)	여자 N=18 N(9.0%)	
일반적 특성	거주방식	본가	63(34.4)	9(50.0)	0.08
		자취·하숙	66(36.1)	8(44.4)	
		기숙사·기타	54(29.5)	1(5.6)	
	경제적상태	상	64(35.0)	3(16.7)	0.11
		중	89(48.6)	9(50.0)	
		하	30(16.4)	6(33.3)	
심리적 특성	행복감	행복함	93(50.8)	4(22.2)	0.00**
		보통	85(46.5)	10(55.6)	
		불행함	5(2.7)	4(22.2)	
	스트레스	없음	48(26.2)	10(55.6)	0.03*
		보통	112(61.2)	7(38.8)	
		많음	23(12.6)	1(5.6)	
음주 특성	음주경험	마신다	177(96.7)	18(100.0)	1.00
		안 마신다	6(3.3)	0	
금연시도		예	115(62.8)	12(66.7)	0.80
		아니오	68(37.2)	6(33.3)	

* p<0.05, ** p<0.01, *** p<0.001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에 따른 금연 시도 양상을 살펴보면, 19~24세인 경우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이 62.8%(120명), 없는 군이 37.2%(71명)로 나타났다. 25세 이상인 경우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이 70.0%(7명), 없는 군이 30.0%(3명)로 나타나 연령에 따라서 금연 시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거주 방식에 따른 금연 시도 양상을 살펴보면, 본가인 경우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이 72.2%(52명), 없는 군이 27.8%(20명)로 나타났다. 자취·하숙인 경우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이 56.8%(42명), 없는 군이 43.2%(32명)로 나타났다. 기숙사·기타인 경우는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이 60.0%(33명), 없는 군이 40.0%(22명)로 나타났다. 본가에 거주하는 군이 금연 시도 경험이 가장 많았다.

경제적 상태에 따른 금연 시도 양상을 살펴보면, 상인 경우는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이 65.5%(72명), 없는 군이 34.5%(38명)로 나타났다. 중인 경우는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이 60.8%(45명), 없는 군이 39.2%(29명)로 나타났다. 하인 경우는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이 58.8%(10명), 없는 군이 41.2%(7명)로 나타났다.

심리적 특성에서 행복감에 따른 금연 시도 양상을 살펴보면,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자인 경우는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이 64.9%(63명), 없는 군이 35.1%(34명)로 나타났다.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자인 경우는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이 62.1%(59명), 없는 군이 37.9%(36명)로 나타났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자인 경우는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이 55.6%(5명), 없는 군이 44.4%(4명)로 나타났다. 평소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군이 48.3%(97명),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군이 47.3%(95명),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군이 4.4%(9명)로 나타났다.

금연 시도 경험이 평상시 스트레스에 따른 금연 시도 양상을 살펴보면, 평상

시 스트레스가 없다고 느끼는 대상자인 경우는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이 62.1%(36명), 없는 군이 37.9%(22명)로 나타났다. 보통이라고 느끼는 대상자인 경우는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이 66.4%(79명), 없는 군이 33.6%(40명)로 나타났다. 많다고 느끼는 대상자인 경우는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이 50.0%(12명), 없는 군이 50.0%(12명)로 나타났다.

음주 특성에서 음주 경험에 따른 금연 시도 양상을 살펴보면,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한 대상자인 경우는 3.0%(6명)이며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이 83.8%(5명), 없는 군이 16.7%(1명)로 나타났다. 술을 마신다고 한 대상자인 경우는 97.0%(195명)이며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이 62.6%(122명), 없는 군이 37.4%(73명)로 나타났다.

소량 음주로 얼굴이 빨개지는 체질에 따른 금연 시도 양상을 살펴보면, 금세 얼굴이 빨개지는 체질이 아니라고 한 대상자는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이 62.1%(100명), 없는 군이 37.9%(61명)로 나타났다. 금세 얼굴이 빨개지는 체질이라고 한 대상자는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이 67.5%(27명), 없는 군이 32.5%(13명)로 나타났다.

한두 잔 술을 마신 이후에 쉽게 술기운이 오르고 기분이 좋아지는 편에 따른 금연 시도 양상을 살펴보면, 음주 후 쉽게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한 대상자는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이 61.4%(70명), 없는 군이 38.6%(44명)로 나타났다. 음주 후 쉽게 기분이 좋아진다고 한 대상자는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이 65.6%(57명), 없는 군이 34.5%(30명)로 나타났다.

음주 시작 연령에 따른 금연 시도 양상을 살펴보면, 16세 미만인 경우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이 60.0%(21명), 없는 군이 40.0%(14명)로 나타났다. 16~18세인 경우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이 60.0%(54명), 없는 군이 40.0%(36명)로 나타났다. 19세 이상인 경우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이 67.1%(47명), 없는 군이 32.9%(23명)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2).

표 2. 연구대상자의 금연시도 여부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차이(N=201)

특성	변수	구분	금연시도		p value
			없음 74(36.8%)	있음 127(63.2%)	
일반적 특성	성	남자	68(37.2)	115(62.8)	0.80
		여자	6(33.3)	12(66.7)	
	연령	19~24세	71(37.2)	120(62.8)	0.75
		25세 이상	3(30.0)	7(70.0)	
	거주방식	본가	20(27.8)	52(72.2)	0.13
자취·하숙		32(43.2)	42(56.8)		
기숙사·기타		22(40.0)	33(60.0)		
	경제적상태	상	38(34.5)	72(65.5)	0.76
		중	29(39.2)	45(60.8)	
		하	7(41.2)	10(58.8)	
심리적 특성	행복감	행복함	34(35.1)	63(64.9)	0.82
		보통	36(37.9)	59(62.1)	
		불행함	4(44.4)	5(55.6)	
	스트레스	없음	22(37.9)	36(62.1)	0.32
보통		40(33.6)	79(66.4)		
많음		12(50.5)	12(50.0)		
음주 특성	음주경험	마신다	73(37.4)	122(62.6)	0.42
		안 마신다	1(16.7)	5(83.3)	
	음주시작 연령	16세미만	14(40.0)	21(60.0)	0.61
		16~18세	36(40.0)	54(60.0)	
		19세 이상	23(32.9)	47(67.1)	
	소량 음주로 빨개지는 체질	아니오	61(37.9)	100(62.1)	0.59
		예	13(32.5)	27(67.5)	
	음주 후 기분 좋음	아니오	44(38.6)	70(61.4)	0.56
		예	30(34.5)	57(65.5)	

*p<0.05, **p<0.01, ***p<0.001

2. 금연 시도 여부에 따른 흡연 및 간접흡연 양상

독립변수인 흡연특성에서 금연 시도 여부에 따른 흡연 시작 연령을 살펴보면, 흡연 시작 연령이 13세 미만인 대상자는 7.5%(15명), 13세 이상인 대상자는 92.5%(186명)였다. 흡연 시작 연령이 13세 미만인 경우에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은 60.0%(9명), 없는 군은 40.0%(6명)로 나타났다.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92.5%(186명)이며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은 63.4%(118명), 없는 군은 36.6%(68명)로 나타났다.

금연 시도 여부에 따른 하루 평균 흡연량을 살펴보면, 하루 평균 흡연량이 20개비 미만인 대상자는 91.0%(183명)로 20개비 이상인 대상자는 9.0%(18명)에 비해 많았다. 20개비 미만인 경우는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이 66.1%(121명), 없는 군이 33.9%(62명)로 나타났다. 20개비 이상인 경우는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이 33.3%(6명), 없는 군이 66.7%(12명)로 나타나 하루 평균 흡연량이 20개비 미만인 대상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금연 시도 여부에 따른 니코틴 의존도를 살펴보면, 니코틴 의존도가 0-3점인 3점 이하인 대상자는 74.1%(149명), 4-9점인 4점 이상인 대상자는 25.9%(52명)이었다. 3점 이하인 경우는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이 68.5%(102명), 없는 군이 31.5%(47명)로 나타났다. 4점 이상인 경우는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이 48.1%(25명), 없는 군이 51.9%(27명)로 나타나 니코틴 의존도가 금연 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신종담배사용 특성에서 금연 시도 여부에 따른 전자담배사용 경험 양상을 살펴보면, 전자담배사용 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45.3%(91명)이며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은 59.3%(54명), 없는 군은 40.7%(37명)로 나타났다. 전자담배사

용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54.7%(110명)이며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은 66.4%(73명), 없는 군은 33.6%(37명)로 나타났다. 전자담배를 사용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복수 응답 제외 N=101명)를 살펴보면, 담배보다 덜 해로울 것 같아서인 경우는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은 84.2%(16명), 없는 군은 15.8%(3명)로 전자담배사용 이유가 금연 시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금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인 경우는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은 90.9%(20명), 없는 군은 9.1%(2명)로 나타났고, 실내에서도 피울 수 있어서인 경우는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은 38.1%(8명), 없는 군은 61.9%(13명)로 나타났고, 쉽게 구할 수 있어서인 경우는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없었으며, 없는 군은 100.0%(1명)로 나타났고, 맛이 더 좋아서인 경우는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은 0.0%(0명), 없는 군은 100.0%(3명)로 나타났고, 향이 더 좋아서인 경우는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은 33.3%(1명), 없는 군은 66.7%(2명)로 나타났다. 담배냄새가 나지 않아서인 경우는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과 없는 군이 각각 50.0%(6명)로 나타났고, 호기심으로인 경우는 금연 시도가 있는 군은 68.8%(11명), 없는 군은 31.3%(5명)로 나타났다. 기타인 경우는 옆에서 피워서, 친구가 피워서로 나타났다.

금연 시도 여부에 따른 가향담배 경험 양상을 살펴보면, 가향담배 사용 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40.3%(81명)이며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은 64.2%(52명), 없는 군은 35.8%(29명)로 나타났다. 가향담배 사용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59.7%(120명)이며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은 62.5%(75명), 없는 군은 37.5%(45명)로 나타났다.

기타종류인 머금은 담배(스누스) 경험 양상을 살펴보면, 머금은 담배(스누스) 사용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10.0%(20명)이며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은 80.0%(16명), 없는 군은 20.0%(4명)로 나타났다. 머금은 담배(스누스) 사용 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90.0%(181명)이며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은

61.3%(111명), 없는 군은 38.7%(70명)로 나타났다.

물담배 사용 경험 양상을 살펴보면, 물담배 사용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12.4%(25명)이며 금연시도 경험이 있는 군은 64.0%(16명), 없는 군은 36.0%(9명)로 나타났다. 물담배 사용 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87.6%(176명)이며 금연시도 경험이 있는 군은 63.1%(111명), 없는 군은 36.9%(65명)로 나타났다.

시가 사용 경험을 살펴보면, 시가 사용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20.9%(42명)이며 금연시도 경험이 있는 군은 45.2%(19명), 없는 군은 54.8%(23명)로 나타났다. 시가 사용 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79.1%(159명)이며 금연시도 경험이 있는 군은 67.9%(108명), 없는 군은 32.1%(51명)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열담배종류(아이코스, 글로, 릴) 사용 경험을 살펴보면, 사용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응답자(N=53) 중 34.0%(18명)이며 사용 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66.0%(35명)로 나타났다. 아이코스, 글로, 릴 사용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서 금연시도 경험이 있는 군은 66.7%(12명), 금연시도 경험이 없는 군은 33.3%(6명)로 나타났다. 사용 경험이 없는 대상자에서 금연시도 경험이 있는 군은 45.7%(16명), 금연시도 경험이 없는 군은 54.3%(19명)로 나타났다.

간접흡연에서 금연시도 여부에 따른 직장(아르바이트 포함) 내 간접흡연 경험 양상을 살펴보면, 직장 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은 적이 없는 경우는 42.8%(86명)이며 금연시도 경험이 있는 군은 57.0%(49명), 없는 군은 43.0%(37명)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은 적이 있는 경우는 57.2%(115명)이며 금연시도 경험이 있는 군은 67.8%(78명), 없는 군은 32.2%(37명)로 나타났다.

가정 내 간접흡연 경험 양상을 살펴보면, 가정 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은 적이 없는 경우는 77.1%(155명)이며 금연시도 경험이 있는

군은 67.1%(104명), 없는 군은 32.9%(51명)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은 적이 있는 경우는 22.9%(46명)이며 금연시도 경험이 있는 군은 50.0%(23명), 없는 군은 50.0%(23명)로 나타났다.

공공장소의 실내에서 간접흡연 경험 양상을 살펴보면, 공공장소의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은 적이 없는 경우는 52.2%(105명)이며 금연시도 경험이 있는 군은 64.8%(68명), 없는 군은 35.2%(37명)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은 적이 있는 경우는 47.8%(96명)이며 금연시도 경험이 있는 군은 61.5%(59명), 없는 군은 38.5%(37명)로 나타났다. 간접흡연에 노출된 경우에 금연시도 경험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태도에서 금연시도 여부에 따른 가향담배판매금지에 대한 찬성여부 양상을 살펴보면, 가향담배판매금지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는 87.1%(175명)이며 금연시도 경험이 있는 군은 60.6%(106명), 없는 군은 39.4%(69명)로 나타났다. 가향담배판매금지에 대해 찬성하는 경우는 12.9%(26명)이며 금연시도 경험이 있는 군은 80.8%(21명), 없는 군은 19.2%(5명)로 나타났다. 가향담배판매금지를 찬성하는 경우가 금연시도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태도에서 금연시도 여부에 따른 금연구역장소 선정에 대한 양상을 살펴보면, 모든 실외 공공장소(보행로, 공원 등)를 금연구역으로 선정하는 것에 찬성하는 경우는 금연시도 경험이 있는 군은 63.8%(60명), 없는 군은 36.2%(34명)로 나타났다. 모든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선정하는 것에 찬성하는 경우는 금연시도 경험이 있는 군은 63.6%(14명), 없는 군은 36.4%(8명)로 나타났다. 전철역 입구로부터 100m(서울시 전철역 입구로부터 100m는 금연구역임)를 금연구역으로 선정하는 것에 찬성하는 경우는 금연시도 경험이 있는 군은 80.0%(12명), 없는 군은 20.0%(3명)로 나타났다. 사람이 많은 변화가(강남대로, 강남역 주변은 금연구역임)를 금연구역으로 선정하

는 것에 찬성하는 경우는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은 63.6%(21명), 없는 군은 36.4%(12명)로 나타났다(표 3).

표 3. 금연 시도 여부에 따른 흡연 및 간접흡연 양상

특성	변수	구분	금연 시도		N=201	p value
			없음 74(36.8%)	있음 127(63.2%)		
흡연 특성	흡연 시작 연령	13세 미만	6(40.0)	9(60.0)	15	0.78
		13세 이상	68(36.6)	118(63.4)	186	
	하루 평균 흡연량	20개비 미만	62(33.9)	121(66.1)	183	0.006**
		20개비 이상	12(66.7)	6(33.3)	18	
니코틴 의존도	0~3점	47(31.5)	102(68.5)	149	0.009**	
	4~9점	27(51.9)	25(48.1)	52		
신종 담배 사용 특성	전자담배 경험	아니오	37(40.7)	54(59.3)	91	0.30
		예	37(33.6)	73(66.4)	110	
가향담배 경험	아니오	29(35.8)	52(64.2)	81	0.80	
	예	45(37.5)	75(62.5)	120		

표 3. 계속

	머금은 담배(스누스)	아니오	70(38.7)	111(61.3)	181	0.14
		예	4(20.0)	16(80.0)	20	
	물담배	아니오	65(36.9)	111(63.1)	176	0.92
		예	9(36.0)	16(64.0)	25	
	시가	아니오	51(32.1)	108(67.9)	159	0.007**
		예	23(54.8)	19(45.2)	42	
가열	사용 안함		19(54.3)	16(45.7)	35	0.22
담배	아이코스, 글로, 릴		6(33.3)	12(66.7)	18	
(N=53)						
간접	직장 내	아니오	37(43.0)	49(57.0)	86	0.11
흡연		예	37(32.2)	78(67.8)	115	

표 3. 계속

	가정 내	아니오	51(32.9)	104(67.1)	155	0.03*
		예	23(50.0)	23(50.0)	46	
	공공장소 실내	아니오	37(35.2)	68(64.8)	105	0.62
		예	37(38.5)	59(61.5)	96	
담배	가향담배판매 금지	반대	69(39.4)	106(60.6)	175	0.04*
규제		찬성	5(19.2)	21(80.8)	26	
정책	모든 공공장소 금연구역	반대	40(37.4)	67(62.6)	107	0.85
태도	선정	찬성	34(36.2)	60(63.8)	94	

*p<0.05, **p<0.01, ***p<0.001

금연 시도 여부에 따른 흡연 특성의 연속형 변수들의 양상을 살펴보면, 처음으로 담배 한 개비를 다 피운 시기에 따른 금연 시도 양상은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은 평균 16.1세(표준편차 2.54), 없는 군은 평균 15.8세(표준편차 2.55)로 나타났다. 담배를 가장 많이 피우던 때에 따른 금연 시도 양상은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은 평균 16.6세(표준편차 2.37), 없는 군은 평균 16.4세(표준편차 2.45)로 나타나 금연 시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루 평균 흡연량에 따른 금연 시도 양상을 살펴보면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은 평균 8.3개비(표준편차 5.17), 없는 군은 평균 10.8개비(표준편차 6.48)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금연 시도를 안하는 군의 하루 평균 흡연량이 금연 시도를 하는 군의 하루 평균 흡연량 보다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표 4).

표 4. 금연 시도 여부에 따른 흡연 특성의 연속형 변수

변수	금연 시도		p value
	없음	있음	
	N=74	N=127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처음 담배 한 개비 다 피운 시기(세)	15.8(2.55)	16.1(2.54)	0.49
담배 가장 많이 피우던 때(세)	16.4(2.45)	16.6(2.37)	0.42
하루 평균 흡연량(개비)	10.8(6.48)	8.3(5.17)	0.004**

*p<0.05, **p<0.01, ***p<0.001

3. 금연 시도 양상

종속변수인 금연시도의 양상에서 금연 시도 계획에 따른 금연 시도 양상을 살펴보면 1개월 내에 금연 시도 계획이 있는 경우는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은 17.3%(22명), 없는 군은 9.4%(7명)로 나타났고, 6개월 내에 금연 시도 계획이 있는 경우는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은 12.6%(16명), 없는 군은 10.8%(8명)로 나타났다. 6개월 이내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금연 시도 계획이 있는 경우는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은 53.5%(68명), 없는 군은 25.7%(19명)로 나타났다. 현재로서는 금연 계획이 없다는 경우는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은 16.6%(21명), 없는 군은 54.1%(40명)로 나타났다.

금연 시도 횟수에 따른 금연 시도 양상을 살펴보면 최근 1년 동안 금연 시도 경험이 1번 있는 군은 27.6%(35명), 2~3번 있는 군은 22.8%(29명), 4~5번 있는 군은 16.5%(21명), 6번 이상 있는 군은 33.1%(42명)로 나타났다.

금연 시도를 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에 따른 금연 시도 양상을 살펴보면 친한 친구가 흡연을 하여서 1.4%(1명), 이성 친구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2.7%(2명),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생각되어서 29.7%(22명), 현재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66.2%(49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금연 시도 방법에 따른 금연 시도 양상을 살펴보면 복수 응답을 한 경우 제외하여 (N=121명) 가장 최근에 담배를 끊기 위해 사용하였던 방법이 스스로 (혼자서), 특별한 방법 없이 자신의 의지로 한 경우는 88.3%(107명)이며 금연 상담전화(금연콜센터)를 사용한 경우는 1.7%(2명), 보건소 금연클리닉(상담, 니코틴 대체용품 등 금연지원서비스)을 이용한 경우는 3.3%(4명), 약국에서 본인 스스로 니코틴 대체용품 (니코틴패치, 니코틴 껌, 니코틴 사탕 등)을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는 1.7%(2명), 병의원을 통해 니코틴 대체용품(니코틴패

치, 니코틴 껌, 니코틴 사탕 등) 사용 또는 의사 처방 약물 치료를 한 경우도 1.7%(2명), 인터넷, 정보포털사이트(금연길라잡이)를 통해 한 경우는 3.3%(4명)로 나타났다. 스스로 (혼자서), 특별한 방법 없이 자신의 의지로 금연시도를 한 경우가 88.3%를 차지하였다(표 5).

표 5. 금연 시도 양상

변수	구분	금연 시도		p value
		없음 74(36.8%)	있음 127(63.2%)	
금연 계획	1개월 내	7(9.4)	22(17.3)	<0.001
	6개월 내	8(10.8)	16(12.6)	
	언젠가는	19(25.7)	68(53.5)	
	금연 계획 없음	40(54.1)	21(16.6)	
금연 시도 횟수	1번		35(27.6)	<0.001
	2~3번		29(22.8)	
	4~5번		21(16.5)	
	6번 이상		42(33.1)	
금연 시도 안하는 이유	친한 친구가 흡연을 하여서	1(1.4)		<0.001
	스트레스 해소	22(29.7)		
	건강에 문제가 없어서	49(66.2)		
	이성 친구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2(2.7)		
금연 시도 방법(N=121)	스스로(혼자서)		107(88.3)	<0.001
	금연상담전화(금연콜센터)		2(1.7)	
	보건소 금연클리닉		4(3.3)	
	약국에서 니코틴 대체용품 구입		2(1.7)	
	병의원 통해 니코틴 대체용품 사용		2(1.7)	
	인터넷 금연길라잡이		4(3.3)	

4. 금연시도 관련 요인

연구 대상자의 금연시도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단계적으로 모형 1은 흡연 특성(흡연 시작 연령, 하루 평균 흡연량, 니코틴의존도)과 금연계획을 통제한 모형이며, 모형 2는 모형 1에 신종담배 사용 특성(전자담배 경험, 가향담배 경험, 기타담배인 머금은 담배(스누스), 물담배, 시가, 가열담배인 아이코스, 글로, 릴)의 경험과 간접 흡연(직장 내, 가정 내, 공공장소)과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태도(금연구역선정 찬성 여부, 가향담배 판매금지 찬성 여부)를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모형 3은 모형 2에 일반적 특성(성별, 나이, 거주방식, 경제적 상태), 심리적 특성(행복감, 스트레스), 음주 특성(음주 여부)을 통제하여 금연시도에 관련된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본 모형이다.

분석결과는 오즈비(OR : odds ratio)와 95% 신뢰구간(95% Confidence Interval: 95% CI)과 P-value로 제시하였다.

모형 1은 흡연 특성(흡연 시작 연령, 하루 평균 흡연량, 니코틴의존도)과 금연계획을 통제한 상태에서 금연시도의 교차비를 분석하였다. 이 결과 흡연 시작 연령이 13세 이상인 군이 13세 미만인 군에 비해 0.91배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하루 평균 흡연량이 20개비 이상인 군이 20개비 미만인 군에 비해 0.25배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니코틴의존도에서는 4~9점이 군이 0~3점인 군에 비해 0.81배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금연계획이 1개월 내 있다는 군에 비해 6개월 내 있다는 군과 언젠가는 금연계획이 있다는 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금연계획이 없는 군이 0.18배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 2는 흡연 특성(흡연 시작 연령, 하루 평균 흡연량, 니코틴의존도)과 금연계획과 신종담배 사용 특성(전자담배 경험)의 경험과 간접 흡연(직장 내, 가정 내, 공공장소)과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태도(금연구역선정 찬성 여부, 가향담배 판매금지 찬성 여부)를 통제한 상태에서 금연시도의 교차비를 분석하였다. 이 결과 흡연 시작 연령이 13세 이상인 군이 13세 미만인 군에 비해 0.96배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하루 평균 흡연량이 20개비 이상인 군이 20개비 미만인 군에 비해 0.23배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니코틴의존도에서는 4~9점이 군이 0~3점인 군에 비해 0.64배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금연계획이 1개월 내 있다는 군에 비해 6개월 내 있다는 군과 언젠가는 금연계획이 있다는 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금연계획이 없는 군이 0.13배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신종담배 사용특성으로 전자담배 경험이 있는 군이 없는 군에 비해 3.55배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간접흡연으로 직장(아르바이트 포함) 내 간접흡연 경험이 있는 군은 없는 군에 비해 1.52배 높게 나타났고,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경험이 있는 군은 없는 군에 비해 0.82배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가정 내 간접흡연 경험이 있는 군은 없는 군에 비해 0.33배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태도로 가향담배판매 금지에 찬성하는 군은 반대하는 군에 비해 5.02배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든 공공장소 금연구역선정에 찬성하는 군은 반대하는 군에 비해 0.89배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 3은 흡연 특성(흡연 시작 연령, 하루 평균 흡연량, 니코틴의존도)과 금연계획과 신종담배 사용 특성(전자담배 경험)의 경험과 간접 흡연(직장 내, 가정 내, 공공장소)과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태도(금연구역선정 찬성 여부, 가향담배 판매금지 찬성 여부)와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거주방식), 심리적 특성(스트레스), 음주 경험을 통제한 상태에서 금연시도의 교차비를 분석하였다. 이

결과 흡연 시작 연령이 13세 이상인 군이 13세 미만인 군에 비해 0.93배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하루 평균 흡연량이 20개비 이상인 군이 20개비 미만인 군에 비해 0.24배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니코틴의존도에서는 4~9점이 군이 0~3점인 군에 비해 0.65배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 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던 하루 평균 흡연량, 금연계획, 전자담배 경험, 가정 내 간접흡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향담배판매 금지에 찬성하는 군은 반대하는 군에 비해 3.84배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공공장소 금연구역선정에 찬성하는 군은 반대하는 군에 비해 1.08배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 3에서 통제된 일반적 특성으로 남녀의 성별에서, 19~24세인 군과 25세 이상인 군에서 각각 0.61배와 1.70배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거주형태가 본가인 군과 자취 또는 하숙, 기숙사 및 기타인 군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심리적 특성인 스트레스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음주 특성으로 음주 경험이 있는 군이 없는 군에 비해 0.53배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6).

표 6. 금연시도 관련 요인

특성	변수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오즈비 95%신뢰구간	P value	오즈비 95%신뢰구간	P value	오즈비 95%신뢰구간	P value
흡연 특성	흡연시작 연령	13세미만	1.0		1.0		1.0	
		13세이상	0.91(0.26-3.11)	0.87	0.96(0.25-3.63)	0.95	0.93(0.23-3.67)	0.92
	하루 평균 흡연량	20개비미만	1.0		1.0		1.0	
		20개비이상	0.25(0.08-0.84)	0.02*	0.23(0.06-0.81)	0.02*	0.24(0.06-0.90)	0.03*
	니코틴 의존도	0~3점	1.0		1.0		1.0	
		4~9점	0.81(0.37-1.77)	0.60	0.64(0.27-1.51)	0.31	0.65(0.27-1.58)	0.35
	금연계획	1개월 내	1.0		1.0		1.0	
		6개월 내	0.81(0.23-2.82)	0.74	0.52(0.14-2.01)	0.35	0.40(0.10-1.62)	0.20
		언젠가는	1.26(0.46-3.46)	0.65	1.16(0.38-3.53)	0.79	1.29(0.37-3.69)	0.78
		없음	0.18(0.07-0.51)	0.001**	0.13(0.04-0.42)	0.000***	0.11(0.04-0.39)	0.000***
신종 담배 특성	전자담배 경험	아니오			1.0		1.0	
		예			3.55(1.60-7.88)	0.002**	3.37(1.49-7.69)	0.004**

표 6. 계속

간접 흡연	직장 내	아니오	1.0		1.0	
		예	1.52(0.71-3.29)	0.28	1.45(0.64-3.26)	0.37
	가정 내	아니오	1.0		1.0	
		예	0.33(0.14-0.79)	0.01*	0.35(0.14-0.85)	0.02
	공공장소	아니오	1.0		1.0	
		예	0.82(0.40-1.69)	0.58	0.86(0.41-1.81)	0.69
담배 규제 정책 태도	가향담배판매금지	반대	1.0		1.0	
		찬성	5.02(1.36-18.46)	0.01*	3.84(0.97-15.23)	0.06
	금연구역선정	반대	1.0		1.0	
		찬성	0.90(0.44-1.83)	0.76	1.08(0.50-2.33)	0.83
일반적 특성	성별	남			1.0	
		여			0.61(0.17-2.25)	0.46

표 6. 계속

	나이	19~24세	1.0	
		25세이상	1.70(0.27-10.52)	0.57
	거주형태	본가	1.0	
		자취·하숙	0.50(0.20-1.23)	0.13
		기숙사·기타	0.64(0.25-1.61)	0.34
심리적 특성	스트레스	많음	1.0	
		보통	0.91(0.37-2.24)	0.84
		없음	0.53(0.15-1.84)	0.31
음주 특성	음주 경험	아니오	1.0	
		예	0.53(0.04-6.32)	0.62

* p<0.05, ** p<0.01, *** p<0.001

† 모형 1 : 흡연 특성(흡연 시작 연령, 하루 평균 흡연량, 니코틴의존도)과 금연계획 통제

‡ 모형 2 : 모형 1에 신종담배 사용 특성(전자담배 경험)과 간접 흡연(직장 내, 가정 내, 공공장소)과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태도(금연구역선정 찬성 여부, 가향담배 판매금지 찬성 여부) 통제

§ 모형 3 : 모형 2에 일반적 특성(성별, 나이, 거주방식), 심리적 특성(스트레스), 음주 특성 통제

V. 고찰

흡연자의 대부분은 금연하기를 원하고 금연을 시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며 행위자가 행위에 부여하는 주관성의 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김애경, 1999). 금연을 시도한 대학생들의 인식구조를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시도한 연구(권성복 등, 2016) 결과 대학생의 금연시도 유형은 주관성에 따라 ‘자기관리 중심의 의지형’, ‘타인 염려 중심의 소심형’, ‘금연여건 중심의 주저형’ 등의 세 가지 유형이 발견되었다. ‘자기관리 중심의 의지형’을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 전략을, ‘타인 염려 중심의 소심형’에게는 금연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전략과 함께 가족구성원을 통한 지지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을 제안하였고, ‘금연여건 중심의 주저형’은 금연을 통한 자존감 강화 및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금연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일부 대학생 흡연자의 금연시도 관련 요인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대도시에 소재한 4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흡연자를 대상으로 편의 추출 모집 조사 하였다. 미비응답이 없는 전체 응답자 232명 중에 201명(남자가 183명, 여자가 18명)을 대상으로 금연시도 관련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교차비를 분석하였다.

금연시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관련 요인 중 하루 평균 흡연량이 20개비 이상인 경우 혼란변수인 일반적 특성, 심리적 특성, 음주 특성을 통제 한 상태에서 금연시도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게 감소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하는데, 일일 흡연량이 적을수록 금연시도 뿐만 아니라 금연성공률이 높다고 밝혀진 바와 유사한 맥락이다(김소라, 2016). 또한 Fegan et al.(2007) 연구에서도 하루 20개비 이상 흡연하는 경우보다 하루 5개비 흡

은 그 이하로 흡연하는 경우 금연시도가 높다는 것으로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흡연량을 조절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니코틴의존도가 0~3점으로 4~9점보다 낮을수록 금연시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니코틴의존도는 담배에 대한 신체적 의존성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니코틴의존도가 높을수록 금연 성공률이 낮다(Kim, 2009)는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거주 방식이 자취나 하숙인 경우가 본가인 경우보다 금연 시도 경험이 감소하였다. 대학생의 거주형태와 건강행위 간의 관계(이복임 등, 2012) 연구를 보면 거주형태별로 흡연자의 비율이 자취군이 39.8%, 통학군이 22.2%, 기숙사군이 21.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구 대상자 중 54.5%가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거주형태별로 금연 시도자의 비율은 통학군이 64.3%, 자취군이 59.2%, 기숙사군이 3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프로그램은 거주 방식 차이에 따른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신종담배 중 시가의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금연 시도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자담배 경험이 있는 경우 금연 시도 관련 요인으로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나타났다. 국내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전국조사 자료를 이용해 금연과 전자담배 사용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결과(김보람, 2017)를 살펴보면, 금연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 비해 행위변화의 의지가 있는 흡연자들은 전자담배를 더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전자담배를 금연 수단 및 담배 대체 용품으로 인식하는 대중의 시각과 달리, 전자담배의 효용성에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여러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다. 금연 보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로 뉴질랜드 사례를 보면 6개월 후 전자담배 그룹에서 7.3%로 가장 높게 금연에 성공하였다(Bullen et al., 2013). 이탈리아 연구에서는 1년 후

전자담배 그룹이 13%로 가장 높은 수치로 금연에 성공하였다(Caponnetto et al., 2013).

이와는 반대의 연구 결과로 미국 현재 흡연자 949명을 1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궤련흡연자는 13.8%, 전자담배 사용자는 10.2%가 1년 후에 금연하였다(Grana, Popova and Ling, 2014). 2010~2011년 캐나다, 미국, 영국, 호주 4개국의 연구 결과는 전자담배 사용자의 11%만이 금연에 성공하였고 전자담배 사용여부가 금연율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Adkison et al., 2013). 금연 및 전자담배 관련 정책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과 전자담배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가정 내 간접흡연을 경험하지 않는 경우에 금연시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흡연은 환경적 영향을 받는데 주변에 흡연자가 많을수록 흡연의 가능성 또는 금연이 어렵다는 선행연구결과(연정운 등 2012; Royal College Physicians, 2010; 황혜숙, 2000)와 일부가 일치하였다. 가정에서의 흡연 노출은 금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2016).

금연시도 양상에서 금연시도를 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현재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가 66.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흡연 및 금연 실태와 금연정책 관련 인식을 조사한 흡연실태조사보고서(2010)에 따르면 과거 담배를 피우다가 금연을 하게 된 이유로는 본인 건강이 나빠져서(55.0%),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8.6%) 등 본인과 가족의 건강이 주된 응답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은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낮으며, 금연의도가 약하기 때문에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금연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금연시도 방법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한 문항은 스스로(혼자서)가 88.3%를 차지하였다. 혼자서 금연시도를 할 때 성공률이 낮음에도 혼자 끊겠다는 경우

가 많았다. 우리나라 19세 이상 남자 흡연자의 1개월 내 금연 계획률은 2015년 담뱃세 인상을 전후로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과거흡연자(남자)가 사용한 금연 방법으로는 자신의 의지인 경우(95.1%, 2015년 기준)가 가장 많았고, 과거흡연자의 금연클리닉 이용률은 2011년 5.5%, 2014년 7.0%, 2015년 6.4% 등으로 2015년 담뱃세 인상을 전후로 다소 높아졌다. 그러나 다수의 흡연자가 공공에서 제공하는 금연 방법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보건복지포럼, 2017). 흡연자들의 70%는 금연을 원하고 있고 절반 이상이 지난 1년 간 금연시도를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 없이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 중 3~6%만 1년 이후에도 금연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의 적절한 금연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30% 이상이 1년 금연성공률을 보였다(대한금연학회지, 2018).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금연 지원 서비스의 홍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는 금연시도 관련 요인을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여 하루 평균 흡연량의 흡연 특성과 거주 방식에 따른 차이, 스트레스와 음주 여부 등의 음주 특성과 전자담배 사용과 가향담배 사용, 기타 스누스, 물담배, 시가 등 신종담배 사용 특성, 간접 흡연,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태도 등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일부 대학생들 대상으로 직접 질문지로 편의 추출 모집 조사로 시행한 자료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질문지 작성 시 대상자들의 불성실한 응답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이 연구는 일부 4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임의 표출하였으므로 우리나라 대학생 모두에게 일반화하기 어렵다.

셋째, 단면 조사 연구로써 제시된 요인과 금연시도 경험과의 선후관계를 설

명할 수 없다.

넷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며 향후 더 큰 표본을 통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금연 시도 관련 요인으로 제시된 요인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금연 정책을 위하여 금연의 성공 관련 요인 규명을 위한 추가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적으로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 확대 등 금연정책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흡연이 유발하는 건강 유해성과 사회경제적 손실로 인해 흡연 예방 및 금연 홍보의 중요성이 높아져서 금연이 사회적 운동으로 전개되어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서 대학생 시기의 금연에 대한 효과적인 금연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VI.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 흡연자의 금연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금연시도를 높이는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 금연 중재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질문지 양식을 기초로 추가된 설문이 있는 질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를 시행하였다.

이를 위한 자료는 대도시에 소재한 4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흡연자 20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과 기술 통계를 시행하였고, 혼란변수를 통제한 후 금연시도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고, 오즈비(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과 P-값을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흡연 특성(흡연 시작 연령, 하루 평균 흡연량, 니코틴의존도)과 금연계획을 통제한 상태에서 금연시도의 교차비를 분석한 모형 1에서 하루 평균 흡연량이 20개비 이상인 군, 금연계획이 없는 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모형 2는 흡연 특성과 금연계획과 신종담배 사용 특성(전자담배 경험)의 경험과 간접 흡연(직장 내, 가정 내, 공공장소)과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태도(금연구역선정 찬성 여부, 가향담배 판매금지 찬성 여부)를 통제한 상태에서 금연시도의 교차비를 분석하였다. 이 결과 하루 평균 흡연량이 20개비 이상인 군, 금연계획이 없는 군, 전자담배 경험이 있는 군, 가정 내 간접 흡연 경험이 있는 군,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태도로 가향담배판매 금지에 찬성하는 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모형 3은 흡연 특성과 금연계획과 신종담배 사용 특성의 경험과 간접 흡연

과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태도와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거주방식), 심리적 특성(스트레스), 음주 경험을 통제된 상태에서 금연시도의 교차비를 분석하였다. 이 결과 모형 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던 하루 평균 흡연량, 금연계획, 전자담배 경험, 가정 내 간접 흡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금연시도 관련 요인으로 제시된 요인뿐만 아니라 금연의 성공 관련 요인 규명을 위한 추가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적으로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 확대 등 금연정책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흡연이 유발하는 건강 유해성과 사회경제적 손실로 인해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 서비스 홍보의 중요성이 높아져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대학생 시기의 금연에 대한 효과적인 금연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암센터.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흡연 현황. 2016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년 건강검진통계연보, 2017
- 권성복, 이은경, 차혜경, 김희정. 대학생의 금연시도에 대한 주관성 연구: Q방법론적 접근.
한국웰리스학회지 2016;11(2)
- 김보람. 성인 흡연자의 금연변화단계와 전자담배 사용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7
- 김소라. 흡연 청소년의 금연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탐색: 매일흡연자와 비(非)매일흡연자 비교
[석사학위 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6
- 김승진, 고기동, 서희선, 김경곤, 황인철, 김선희, 조난영. 한국 성인 남성에서 금연 의도와 관련
된 요인: 국민건강영양조사 2013-2014년. 한국가정의학회지 2017;7(2):276-80
- 김신정, 문선영, 한경순. 일부 대학생의 흡연 실태.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002;13(1)
- 김애경. 남성 흡연자의 금연에 대한 주관성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1999;32(2):917-28
- 김영복. 우리나라 대학생의 흡연행동과 환경요인, 건강생활실천 간의 관련성. 보건교육·건강증
진학회지 2015;32(2):15-26
- 김은경, 송미령. 흡연대학생의 제 특성과 금연프로그램 선호도 분석. 기초자연과학회지
2013;15(4):184-192
- 김인규. 청소년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흡연에 관한 연구-전라북도 농촌지역 남자고등학교를
중심으로[석사학위 논문]. 인천: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
- 김종성, 이민동, 광기우, 이해리, 윤방무. 가족 요인의 차이에 따른 대학생의 흡연양상. 가정의
학회지 1989;10(5):11-21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2002
- 박봉천.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가족기능과 우울성향 및 음주·흡연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석
사학위 논문]. 서울: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2001
- 박지연. 한국 청소년의 금연시도 관련요인.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016;29(3):277-85
- 보건복지부, 2010년 상반기 성인흡연 실태조사 결과(보도자료), 2010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5 국민건강통계, 2014 국민건강통계, 2011 국민건강통계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범정부, 「금연 종합대책」 발표(보도자료), 2014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금연정책 강화에 따른 담배제품 이용변화 및 신종담배 규제방안 연구, 2015
- 서홍관. 흡연자의 국내 금연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2016년 국제 담배규제 정책 평가조사(International Tobacco Control Policy Evaluation Survey_Korea) 결과. 대한금연학회지 2018;9:S22-30
- 소현진. 20대 흡연자 집단의 흡연행위 인지구조 탐색: 효과적인 금연캠페인 전략 개발을 위하여. 광고학연구 2012;23(4):77-96
- 손성재. 청소년 흡연요인이 흡연정도 및 흡연예방교육에 미치는 영향[박사학위 논문]. 서울: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2014
- 안혜영. 대학생의 금연 행위에 대한 연구. 아동간호학회지 2001;7(3)
- 연정운, 김형수, 이건설, 장성훈, 최희정, 함은미, 명준표. 성인 남성이 금연 준비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2012;42(3):277-84
- 이국화. 청소년의 흡연 환경과 금연시도경험의 관련성[석사학위 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5
- 이미라. 대학생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과학회지 1997;27(1):156-68
- 이복임, 김윤미, 김윤정, 서은옥, 이동근, 이석희, 이수미, 한경미, 한유진. 대학생의 거주형태와 건강행위 간의 관계.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012;25(1):77-84
- 이여진, 이군자, 김영숙. 인구학적, 흡연 및 금연관련 요인이 청소년 흡연자의 금연성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1;11(4):303-11
- 이예림. 청소년 흡연자의 금연 시도 이유와 전자담배 사용과의 관련성[석사학위 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5
- 이혜순, 송미령. 금연준비단계 대학생의 니코틴의존도 영향요인. 기본간호학회지 2013;20(4):429-437
- 조경숙, 윤창호.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청소년의 흡연행태 변화. 보건사회연구 2014;34(4):500-22
- 천은미. 효과적인 금연 치료와 최신지견.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5:325-7
- 최은진. 금연지원정책지표의 현황과 발전 방향. 보건복지포럼, 2017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금연 이슈리포트, 2016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년도 국민 건강 및 보건의식 행태 조사, 1993

- 황준현, 박순우. 담배가격 인상 수준에 따른 흡연 청소년의 금연의도.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014;27(2):59-68
- 황혜숙. 청소년 흡연자의 금연시도 예측요인[석사학위 논문]. 부산: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 20
- Adkison SE, O'Connor RJ, Bansal-Travers M, Hyland A, Borland R, Yong HH, Curnmings KM, McNeill A, Thrasher JF, Hammond D, Fong GT, Electronic nicotine delivery systems: international tobacco control four-country survey. Am J Prev Med 2013;44(3):207-15
- Ana M, Christina SL, Laura M, David RS, Belinda B, Richard AB, et al. Health risk behaviors in relation to making a smoking quit attempt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2009;32(2):142-9
- Bullen C, Howe C, Laugesen M, McRobbie H, Parag V, Williman J, Walker N, Electronic cigarettes for smoking cessation, A randomised controlled trial, Lancet, 2013;382(9905):1629-1637
- Caponnetto P, Campagna D, Cibella F, Morjaria JB, Caruso M, Russo R, Efficiency and Safety of an eElectronic cigAreTte (ECLAT) as tobacco cigarettes substitute: a prospective 12-month randomised control design study. PLoS One 2013;(8):e66327
- Ding A. Youth more sensitive to price changes in cigarettes than adults. Yale J Biol Med 2003;76(3):115-24
- Escoffery C, McCormick L, & Bateman K. Development and process evaluation of a web-based smoking cessation program for college smokers: Innovative tool for education,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2004;53:217-25
- Fagan P, Augustson E, Backinger CL, O'Connell ME, Vollinger RE Jr, Kaufman A, Gibson JT, Quit Attempts and Intention to Quit Cigarette Smoking Among Young Adults in the Unites States. Am J Public Health 2007;97(8):1412-20
- Grana RA, Benowitz N, Glantz SA, Background paper on E-cigarettes(Electronic Nicotine Delivery Systems), Center for Tobacco Control Research and Educ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WHO Collaborating Center on Tobacco Control Prepared for World Health Organization Tobacco Free Initiative 2013
- Huffintonpost.kr. “전자담배, 장기적 금연효과 증거 없다”: 미국 흉부학회 발표, 2015
- Kim HC, Cho KS, Kwon SM, Lim JY.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Tobacco Price on

- Adolescent Smoking in Korea:Smoking Reduction and Brand Switching.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012;32(3):429-60
- Lam TH, Stewart SM, Ho SY, Lai MK, Mak KH, Chau KV, Rao U, Salili F. Depressive symptoms and smoking among Hong Kong Chinese adolescents. *Addiction* 2005;100(7):1003-11
- Lee CW & Kahende J. Factors associated with successful smoking cessation in the United States, 2000. *Am J Public Health.* 2007;97(8):1503-9
- Lee SK, Grana RA, Glantz SA. Electric Cigarette Use Among Korean Adolescents: A Cross-sectional Study of Market Penetration, Dual Use, and Relationship to Quit Attempts and Former Smoking. *J Adolesc Health* 2014;54(6):684-90
- Kim SR, Influencing factors on smoking quit attempts in adolescent smokers [master's thesi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6
- Ministry of Health Welfare. Survey on smoking behaviors, 2010
- Park E, & Drake E. Systemic review:Internet-Based Program for Youth Smoking Prevention and Cessation.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015;47(1):43-50
- Tucker JS, Erickson PL, Orlando M, Klein DJ, Predictors of attempted quitting and cessation among young adult smokers. *Prev Med* 2005;41:554-61
- Zhu SH, Sun J, Billings SC, Choi WS, Malarcher A. Predictors of smoking cessation in U.S. adolescents. *Am J Prev Med* 1999;16(3):202-7

< 부 록 >

대 상 자 설 명 문 (인간대상 연구용)

연구 제목 : 일부 대학생 흡연자의 금연시도 관련 요인

연구 책임자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건강증진학과 홍금숙

이 설명문은 본 연구에 대한 귀하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고, 본 연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 이 설명문을 읽고 충분히 이해하고 생각하신 후에 참여 여부를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본 연구에 참여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 어떤 사람들이 본 연구에 참여하는지, 본 연구에 참여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이익과 위험하거나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연구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하시는 경우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하셔도 됩니다. 만약 귀하께서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신다면 동의 의사를 동의서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의미하며 이 문서에 대한 귀하의 서명은 귀하께서 자신(또는 법정대리인)이 본 연구에 참가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건강증진학과 건강증진교육 전공 석사과정생 홍금숙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흡연의 피해는 개인을 조기 사망하게 한다는 점과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의료비용을 상승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우리나라의 만19세 이상 성인 인구 중 현재흡연율은 남자인 경우 2015년에 전년도에 비해 3.8%p 감소한 반면, 19~29세의 현재흡연율은 2015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남자는 3.9%p 증가하였습니다.

현재흡연자의 금연시도율(최근 1년 중 24시간 이상 금연시도)은 담뱃값 인상 영향으로 2014년 25.5%에서 2015년 34.6%로 급등, 지난해는 29.7%로 도로 떨어졌습니다.

습관적 흡연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여겨지는 대학생 시기의 금연중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석사학위 논문인 '일부 대학생 흡연자의 금연시도 관련 요인' 을 분석하는 데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수, 기간과 장소

본 연구는 대도시 소재 4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일부 대학생 흡연자 총250명이 참여하며, 귀하께서 연구 참여에 동의하실 경우, 연세의료원 연구심의 승인일로부터 2018년 8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3. 연구의 절차 및 방법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셨다면, 하단 대상자 동의서 양식에 서명하시게 됩니다. 서명 전 연구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연구자에게 질문하여 주십시오.

동의서에 서명하신 이후에 설문지에 답변하여 주시면 설문지를 수거하여 본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본 연구의 방법은 금연 시도 경험의 관련 요인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게 될 것이며 작성하는 데에는 총 10~20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솔직하게 답변해야 하는 점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연구에 참여 하여 기대할 수 있는 이익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익은 없으며,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금연 시도 관련 요인을 분석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체계적인 금연 건강증진사업 수립에 기여가 될 것입니다.

5. 연구에 참여 하여 예상되는 위험 및 불편

이 연구의 참여로 귀하가 받게 될 예상되는 위험이나 불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만일 질문지 작성에 따른 불쾌감이나 거부감이 발생할 경우 연구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에게 문의 주시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연구 참여에 따른 보상

귀하께서 이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별도로 받으시게 될 사례비는 없습니다.

7. 정보 수집 및 제공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예정이며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여하여 주십시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는 기간은 정보수집이용 목적 달성까지입니다.

8. 개인정보 및 기록에 대한 비밀보장

본 연구에서는 이름을 비롯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구 결과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 종료 후 연구관련 자료는 3년간 보관되며 이후 병원의 수칙에 따른 개인정보 문건 폐기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폐기될 것입니다.

9. 참여/철회의 자발성

귀하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에 대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 참여는 종료되고 연구진은 귀하에게 연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이전까지 수집된 정보를 폐기하여 이용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귀하의 의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10. 연락처

이 연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연구와 관련이 있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연구자 성명 : 홍금숙

연구자 주소 :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 02-2228-****

24시간 연락처 : 010-6317-****

대상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말씀 하시거나 다음의 번호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세의료원 연구심의위원회 ☎ 02-2228-0454

대 상 자 동 의 서

연구제목 : 일부 대학생 흡연자의 금연시도 관련 요인

※ 본인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한 결과, 다음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이 설명문을 읽었으며, 본 연구의 목적, 방법, 기대효과, 가능한 위험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 이 연구목적으로 개인(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설명을 이해 하였습니다.
-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하였고,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본 연구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인은 설명문 및 작성된 동의서 사본 1부를 받습니다.

대상자 성명		서명	서명날짜
--------	--	----	------

‘대리인’ 또는 ‘대상자의 대리인’ 이라고도 함.

*대리인 성명 (필요 시)		서명	서명날짜
-------------------	--	----	------

(대상자와 관계: _____)

참관인 성명 (필요 시)		서명	서명날짜
------------------	--	----	------

설명한 연구자의 성명		서명	서명날짜
----------------	--	----	------

6. 평소에 자신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행복함
- ② 보통
- ③ 불행함

7. 평상시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까?

- ① 스트레스가 많음
- ② 보통
- ③ 스트레스가 없음

8. 처음으로 담배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워본 때는 언제입니까?

만 _____ 세

9. 처음으로 담배 한 개비를 **다 피운 시기**는 언제입니까?

만 □□ 세

10.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피운 담배의 총 양은 얼마나 됩니까?

- ① 5갑(100개비) 미만
- ② 5갑(100개비) 이상

11. **매일 한 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운 시기는 언제입니까? 만 _____ 세

12. 담배를 **가장 많이** 피우던 때는 언제입니까? 만 _____ 세

13.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

① 매일 피운다 →	13-1. 하루 평균 흡연량은 몇 개비 □□□개비 (→/4번으로)
② 가끔 피운다 →	13-2. 최근 1달 동안 흡연일수는 며칠입니까? □□일 13-3. 흡연한 날 하루 평균 흡연량은 몇 개비입니까? □□□개비 (→/4번으로)
③ 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는다	

13-4. 과거 흡연 기간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년 □□개월

13-5. 과거 담배를 피울 때 하루 평균 흡연량은 얼마나 됩니까? □□□개비

13-6. 담배를 끊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년 □□개월 (→19번으로)

14.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 만에 첫 담배를 피우십니까?

- ① 5분 이내
- ② 6~30분 이내
- ③ 31~1시간 이내
- ④ 1시간 이내

15. 금연구역(도서관, 극장, 병원 등)에서 담배를 참기가 어렵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16. 하루 중 담배 맛이 가장 좋은 때는 언제입니까?

- ① 아침 첫 담배
- ② 그 외의 담배

17. 오후와 저녁시간 보다 오전 중에 담배를 더 자주 피우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18. 몸이 아파 하루 종일 누워있을 때에도 담배를 피우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19. **최근 30일 동안** (금연한 경우: 담배를 가장 많이 피우던 당시), 가장 많이 사용한 담배제품의 종류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1) 멘솔 향, 캡슐 담배
- 2) 멘솔 향, 캡슐이 없는 담배
- 3) 멘솔 이외의 가향 (과일 향 등), 캡슐 담배
- 4) 멘솔 이외의 가향 (과일 향 등), 캡슐이 없는 담배
- 5) 향이 없는 담배
- 6) 기타 (전자담배, 시가, 롤링 타바코, 씹는 담배 등)

20. 위의 질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담배제품의 종류가 ‘가향담배’인 경우 (1,2,3,4번 응답자), 가향담배 흡연을 시작한 이후 ‘흡연량의 변화’가 있습니까?

- ① 향이 없는 담배보다 가향담배 흡연량이 많다
- ② 향이 없는 담배보다 가향담배 흡연량이 적다
- ③ 향이 없는 담배 흡연량과 가향담배 흡연량은 같다
- ④ 향이 없는 담배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가향담배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21. 위의 질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담배제품의 종류가 ‘가향담배’인 경우 (1,2,3,4번 응답자), 가향담배를 시작한 이후 ‘담배 한 개비를 태우는 길이’에 변화가 있습니까?

- ① 향이 없는 담배보다 가향담배를 더 끝까지 태운다 (깡초가 짧다)
- ② 향이 없는 담배보다 가향담배를 더 짧게 태운다 (깡초가 길다)
- ③ 향이 없는 담배 깡초 길이와 가향담배의 깡초 길이는 같다
- ④ 향이 없는 담배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가향담배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22. 위의 질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담배제품의 종류가 ‘가향담배’인 경우 (1,2,3,4번 응답자), 가향담배 흡연을 시작한 이후 담배를 끊고자 하루 (24시간 이상) 금연을 시도한 횟수의 변화가 있습니까?

- ① 향이 없는 담배를 피울 때보다 금연시도 횟수가 많다
- ② 향이 없는 담배를 피울 때보다 금연시도 횟수가 적다
- ③ 금연시도 횟수는 같다
- ④ 향이 없는 담배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가향담배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23. 다음 중 가장 끊기 어려울 것 같은 (금연하기 어려울 것 같은) 담배 종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1) 멘솔 향, 캡슐 담배
- 2) 멘솔 향, 캡슐이 없는 담배
- 3) 멘솔 이외의 가향 (과일 향 등), 캡슐 담배
- 4) 멘솔 이외의 가향 (과일 향 등), 캡슐이 없는 담배
- 5) 향이 없는 담배
- 6) 기타 (전자담배, 시가, 롤링 타바코, 씹는 담배 등)

24. **최근 1년 동안** 담배를 끊고자 하루 (24시간) 이상 금연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1) 1번 2) 2-3 3) 4-5번 4) 6번 이상 5) 없음

② 아니요 → 24-1. 금연을 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친한 친구가 흡연을 하여서
- ② 이성 친구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 ③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생각되어서
- ④ 현재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 ⑤ 기타 ()

25. 앞으로 담배를 끊을 계획이 있습니까?

- ① 1개월 안에 금연할 계획이 있다
- ② 6개월 안에 금연할 계획이 있다
- ③ 6개월 이내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금연할 계획이 있다
- ④ 현재로서는 전혀 금연할 생각이 없다

26. **최근 5일 동안** 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니코틴 사탕 등의 , 니코틴 대체 용품을 마지막으로 사용한 때는 언제입니까?

- ① 오늘 사용
- ② 1일 전 사용
- ③ 2일 전 사용
- ④ 3-5일 전 사용
- ⑤ 최근 5일 동안 사용하지 않음

27. 가장 최근에 담배를 끊기 위해 사용하셨던 방법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스스로 (혼자서), 특별한 방법 없이 자신의 의지로
- ② 금연상담전화 (금연콜센터)
- ③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 니코틴 대체용품 등 금연지원서비스)
- ④ 약국에서 본인 스스로 니코틴 대체용품(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니코틴 사탕 등)을 구입하여 사용
- ⑤ 병의원을 통해 니코틴 대체용품(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니코틴 사탕 등) 사용 또는 의사 처방 약물 치료
- ⑥ 인터넷, 정보포탈사이트 (금연길라잡이)
- ⑦ 기타 ()
- ⑧ 금연을 시도한 적 없다

28~30번은 간접흡연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상자 모두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28. 최근 7일 동안 직장(아르바이트 포함)의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③ 직장에 다니지 않는다(일을 하지 않는다)

29. 최근 7일 동안 가정의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③ 본인을 제외한 가족 등 가정의 실내에서 일상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다

30. 최근 7일 동안 공공장소의 실내(흡연실 제외)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은 적이 있습니까?

※ 공공장소: 공공기관청사, 학교, 도서관, 교통수단, 공연장, 관광숙박업소, 게임제공업소, 음식점, 만화대여업소 등

- ① 예
- ② 아니오

32-1. **최근 1달 동안** 지금까지 사용해 본 것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일반담배, 전자담배는 제외합니다.

① 머금은 담배(스누스)	② 물담배
③ 시가	④ 기타
⑤ 피운 적 없다	

33. **지금까지** 가열담배 (아이코스, 글로, 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34번으로)

33-1. 다음 가열담배 중 가장 많이 사용한 제품은?

- ① 아이코스(IQOS)
- ② 글로(Glo)
- ③ 릴(Lil)

33-2. 얼마나 자주 피우십니까?

- ① 매일 피운다
- ② 가끔 피운다
- ③ 지금은 안 피운다

33-3. 하루 평균 몇 개비를 피우십니까?

_____개비/하루

34. 향후 우리나라에서 다음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면 이에 찬성하십니까?

- | | |
|------------------------------------|-----------|
| 1) 모든 실외 공공장소(보행로, 공원 등) | ① 찬성 ② 반대 |
| 2) 모든 보행로 멘솔 이외의 가향(과일 향 등), 캡슐 담배 | ① 찬성 ② 반대 |
| 3) 모든 공원 | ① 찬성 ② 반대 |
| 4) 음식점 실외 | ① 찬성 ② 반대 |
| 5) 편의점 실외 | ① 찬성 ② 반대 |
| 6) 전철역 입구로부터 100m | ① 찬성 ② 반대 |
| (서울시 전철역 입구로부터 10m는 금연구역임) | |
| 7) 사람이 많은 번화가(강남대로, 강남역 주변은 금연구역임) | ① 찬성 ② 반대 |

8) 개인 차량 안

① 찬성 ② 반대

35. 향후 우리나라에서 가향담배 판매를 금지한다면 이에 찬성 하십니까?

- ① 찬성
- ② 반대
- ③ 모르겠다

36. 술을 드시기 시작한 것은 몇 세부터입니까?

- ① 만 _____ 세
- ② 마시다 끊었다
- ③ 술을 안 마신다

35-1. 술을 끊으셨다면 언제 입니까? 만 _____ 세

37. 한 잔 정도의 소량의 음주로도 금세 얼굴이 빨개지는 체질입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37-1. 보통 몇 잔 정도를 마시면 빨개집니까?

- ① 두 잔
- ② 세 잔
- ③ 네 잔
- ④ 다섯 잔
- ⑤ 여섯 잔 이상

38. 한두 잔 술을 마신 이후에 쉽게 술기운이 오르고 기분이 좋아지는 편입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BSTRACT

Factors affecting attempts to quit smoking in some university students

Geum Suk Hong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un Ha Jee, Ph.D)

Background and purpose : In terms of developmental stages, university students belong to its early stage and are experiencing some health-related problems caused by smoking and drinking habits. In this stage, compared to other developmental stages, they not only have low death rate and low disease rate but also have the possibility to regain better healthy condition by breaking bad life styles.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will find out some factors related to smoking cessation attempts by some university students

Methods : This research was targeted to university student smokers who go to each of 4 universities located in major cities to whom convenience sampling was applied. Out of the whole 233 respondents who had no inadequate answers, 201 samples were chosen and the samples of this group were those smokers who have been smoking more than 5 packets(100 cigarettes, N=221) and currently smoke as

well.

Firstly, in order to figure out each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s, this research carried out a frequency analysis and a descriptive analysis. Secondly, it applied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find out reasons related to smoking cessation attempts after having controlled confounding variable. And finally, this research tested a statistical significance by using Odds ratio(OR), 95% confidence interval and P-Value.

Result : Out of overall 201 samples, those of male students who have ever tried to quit smoking comprised 62.8%(115 students) and those who have never attempted to were 37.2%(68 students). In case of female students, those who have tried to quit consisted in 66.7%(12 students) and those who have not were 33.3%(6 students).

When it comes to the difference between sexes, the female students showed statistical significance in subjective happiness and stress, both of which ar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Checking on the aspects of smoking and involuntary smoking according to smoking cessation attempts or no trial, the average smoking amount per day and nicotine dependency showed a statistical significance in smoking cessation attempts. In case of the use of new tobacco products, the students who had never smoked cigars attempted to quit smoking in a statistic-significant way. Regarding involuntary smoking, the attitudes towards involuntary smoking experiences in family and restriction policies on smoking which were expressed in the type of

ban on sales of cigarettes showed a statistical significance.

Checking on the aspects of smoking cessation attempts, the reasons why they would not try to quit smoking were they could not feel any problems of health, which comprised 66.2% thus ranked as top and concerning on how to quit smoking, attempting on their own accounted for 88.3%.

Regarding factors related to smoking cessation attempts, the average smoking amount per day, smoking cessation plans, experiences of electronic cigarette, experiences of involuntary smoking at home and the attitude towards restriction policy on smoking in the type of ban on sales of cigarettes had something to do in a statistic-significant way.

Conclusion : This research is of significance in that it was a sample survey conducted by using data through sampling university students to whom were given questionnaires directly. As it indicates that the less the amount of smoking per day, the higher the success rate of smoking cessation attempts as well as smoking cessation attempts in itself is, to cut down on smoking quantity is important. The experiences of electronic cigarette was related to the smoking cessation attempts in a statistic-significant way.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the general public regard electronic cigarette as smoking cessation method or a substitute for cigarettes, questions have been thrown around on its efficiency so a lot of researches are being conducted. In addition, the further study to

investigate not only the factors which were proposed as reasons of smoking cessation attempts but also those related to the success of smoking cessation are needed. On the other hand, due to health risk attributable to smoking during college life and its socioeconomic loss, the importance of the prevention of smoking and the campaign for smoking cessation aid have been highly increasing. In this regard more effective restriction policies on smoking must be proposed.

Key words : University students, Smoking, Smoking quit attempts,
New tobacco products